



# 양양소식

**군정방침**

I. 신뢰받는 자치행정  
 I. 균형있는 지역발전  
 I. 매력있는 관광개발  
 I. 실속있는 복지실현  
 I. 특색있는 문화창달

발행인:양양군수 / 편집인:기획감사실장 / 발행처: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033)672-4242



## 군민화합 한마당 잔치

### 제24회 현산문화제 팡파르

6월24일 ~ 27일 4일간  
 남대천 둔치 및 행사장

- 61개 세부단위 행사...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우리지역 전통문화 축제인 현산문화제가 올해부터 지역업체들의 전면적인 참여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상권운영의 판도변화를 예고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는 6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24회 현산문화제는 풍물시장 등 지역축제 상권운영을 음식업협회 양양군지부에 위탁하고 지역업체나 음식점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경기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한다.이에 따라 그동안 외지 상인들이 독점해온 풍물시장 등 대규모 운영권이 지역업체로 위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양양관내 음식점들의 경기회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현산문화제 풍물시장 등 축제상권과 관련해 설악권 최초로 시도되는 지역업체 위탁운영은 특히 관내 1백여개

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경우, 지역경기 부양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산문화제 위원회는 올해 예산을 군 보조금 9천7백만원, 이월금 5백21만원 등 1억2천2백여만원으로 확정했다. 제24회 양양 현산문화제는 전야제를 비롯해 식전행사, 개막식, 식후행사, 민속놀이, 문예행사, 부대행사 등 모두 61개 세부단위 행사로 개최된다.제34회 군민체육대회와 병행해 열리는 올해 현산문화제는 특히 행사장 본부석 그늘막 확충, 고정무대 설치장소 변경 등 지난해 펼쳐진 현산문화제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지역화합을 이뤄내는 성공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이끈다는 계획이다.현산문화제위원회 이재풍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수없이 많이 개최되지만 실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올해 처음 시도하는 위탁운영을 통해 우리지역의 경기부양이 가능하고 지역화합을 이루는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수당선자 이진호



한나라당  
55세  
상업  
동국대 농업경제학과 졸업  
강원도의원 역임  
(현)양양군번영회장

도의원당선자(제1선거구)	도의원당선자(제2선거구)	군의원당선자(강현면)
박용길	김돈일	김주혁
한나라당 57세 강원도의회 의원 양양고등학교 졸업 양양중·고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현)강원도의회 의원	한나라당 48세 정당인 삼척공업전문학교 5년 졸업 양양군의회 의원 (현)양양송이축제위원장	재선 68세 양양군의회 의원 속초고등학교 졸업 초대 강원도의회 의원 역임 (현)양양군의회 의원
군의원당선자(양양읍)	군의원당선자(양양읍)	군의원당선자(서면)
박상형	박태석	김현수
재선 46세 양양군의회 의원 관동대 환경공학과 4년 졸업 (현)양양군의회 의원	초선 56세 무직 양양고등학교 졸업 양양군 지방공무원 26년 근무	초선 49세 농업 양양중학교 2년 중퇴 새마을지도자 양양군협의회장 한국농업경영인 양양군연합회장
군의원당선자(손양면)	군의원당선자(현북면)	군의원당선자(현남면)
김준식	오세만	김우섭
초선 43세 여행사 동우대 관광과 2년 졸업 양양로타리클럽 회장 양양군불령협회장	초선 42세 손해보험업 동우대 관광과 2년 졸업 시사강원신문사 양양주재기자	초선 41세 대우자동차 강릉 영업소장 강릉대 무역학과 4년 졸업 현남면 자율방범 자문위원 강릉대 총동창회 부회장

## 남북 직항로 빠르면 7월 개설 전망

- 양양~선덕간 유력... 북측실사단 10명 양양국제공항 실사 -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경수로사업 물자수송과 관련, 북측 실사단 10여명이 지난 20일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실사를 마친 가운데 남북한 직항로 개설이 빠르면 오는 7월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직항로 사업추진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북 경수로 사업의 긴급 수송수단 확보에 따라 양양~북한 선덕간 직항로 개설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북측 실사단의 양양국제공항 시찰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7월중 전격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 실사단의 이번 방문에 따른 직항로 개설추진 가시화는 지난 96년 북한과 KEDO가 통행의정 협의서를 통해 남북간 직항로 개설원칙에 합의한 이후 7년만의 결실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방문, 제주도 민간인 방문단의 북한방문이 일회성 직항로 교류에 그친 반면 이번 북측 실사단의 양양국제공항 실사에 따른 직항로 개설 가시화는 정기노선의 성격으로 남북간 상시 항공노선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더한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경수로 수송물자가 북한으로 직접 수송될 경우, 지금까지의 교류항로가 주로 서해안을 이용한 노선이었으나 양양~선덕간의 항로가 개설되면 동해안 중심의 새로운 남북 교통로를 여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향후 선덕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남북간 연계 관광산업의 활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재개 등 경색국면이 해소되면서 양양~선덕간 직항로 개설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측 실사단의 방문은 남북 화해무드 조성과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항공노선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양양~선덕간 직항로가 개설될 경우 소요시간은 40분 정도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KEDO측도 그동안 평양~북경~인천을 경유하는 막대한 수송비용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테니스로 한·일 우호증진 앞장

- 양양군 - 일본 돗토리현... 내년 전세계로 양양방문 -

우리군청 테니스동아리회(회장 박원표) 회원들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돗토리현과 다이센초를 방문,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성공을 기원하는 테니스교류를 가져 화제다. 매년 한·일교류 방문활동을 펼쳐온 양양군청 테니스동아리회는 테니스를 통해 회원들간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시간외에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실천적 봉사를 전개해 왔다. 테니스동아리회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한·일 테니스 교류기간을 월드컵이 열리기 이전인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 월드컵 성공개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양국 자치단체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테니스동아리회는 이번 일본방문을 통해 테니스 경기에 앞서 돗토리현과 다이센초의 유적지를 둘러보며 일본의 역사, 문화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일 자치단체 테니스 동아리회원들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정기교류전은 흥구장의 잇점과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다이센초팀의 승리로 돌아갔다.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우호증진에 힘써온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초 테니스회원들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열리는 제5회 테니스 정기교류전에는 전세계를 이용해 참가할 계획이다. 우리군청 테니스 동아리회 탁동수총무는 “월드컵 성공개최와 자치단체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된 한·일교류가 무사히 치러져 기쁘다”며 “미래지향적 출발점에서 시작한 만큼 회원들 모두가 협력해 군정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해수욕장 7월13일 개장

- 관내 21개소 ... 물치해수욕장 새로 등장 -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우리관내 해수욕장이 오는 7월13일 개장해 8월20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우리군에 따르면 시범해수욕장인 낙산과 하조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일반해수욕장 4개소와 간이해수욕장 15개소 등 모두 21개소의 관내 해수욕장이 개장, 피서객을 맞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강현면 물치리에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물치해수욕장이 새로 개장할 계획으로 우리지역 21개 해수욕장의 피서객 동시 수용인원이 14만2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전 6시부터 문을 여는 가급 해수욕장은 낙산, 하조대, 설악, 오산, 남해해수욕장 등으로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나급은 밤 10시, 다급은 오후 8시에 문을 닫는다. 우리군은 이에 따라 2층 연면적 2백9평 규모의 낙산 행정봉사실을 신축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중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를 마련, 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간당 최고 5천평 규모의 백사장을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와 인명구조선 2대를 구입해 피서객 안전과 청결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12일부터 41일간 우리지역 20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철 관광객은 모두 1백90만명으로 올해는 물치해수욕장의 개장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양양송이' 관광축제로 뒀다

우리군은 지난 1일 서울 명동 중랑로에서 개최되는 제2회 관광축제 전시회에 참가해 전국적인 특산물축제로 자리잡은 송이축제홍보와 함께 양양국제공항 알리기에 나섰다.군은 송이축제위원 3명으로 구성된 축제홍보단을 파견, 양양송이 축제를 홍보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특산물을 전시했다. 특히 관광축제 홍보현장에 우리군 부스 1개소를 별도로 마련해 송화주, 송이장조림, 송이김치, 인진숙, 송이된장·고추장, 영지버섯, 오색한과 등 양양지역 특산물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관광축제에 참가하는 우리군은 이번에 전시하는 특산물 가운데 송이장조림과 송이김치, 서광농협이 생산·판매하는 인진숙 엑기스 시음회를 갖고 소비자들에게 우리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폭넓게 알렸다.양양송이축제를 비롯해 전국 30대 문화관광부지정 주요축제 테마가 선보이는 제2회 관광축제는 월드컵 기간중 외국인들에게 우리고유의 축제문화를 선보이는 계기로 마련됐다.해마다 상품성과 기획면에서 전국적인 모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양양송이축제는 올해로 5회째 문화관광부지정 축제로 선정됐다.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양양군 전도영 축제기획담당은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국제공항을 통해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제공항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송이축제 홍보전략 극대화를 토대로 지난해보다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송이의 고향인 양양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농기계순회 수리교육 효과 만점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우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범)가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사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월까지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지역 101개 마을을 대상으로 160회의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군부대와 공동으로 펼치는 수리교육은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등 모내기철에 필요한 농기계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수리비용이 5만원 이하일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다.농업기술센터는 수리교육과 함께 영농 전반에 걸친 상담을 병행 실시, 바쁜 농사철 농업인들의 고충을 수렴해 농업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영농시책을 전개하고 있다.우리군은 현재까지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5백2대의 농기계를 수리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41개 마을 농기계 474대를 군부대의 지원으로 실시했다.군은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양양관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참가해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준 8군단 소속 군무원 조준국씨와 박형선 병장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농업기술센터 홍보기 인력개발담당은 “농촌일손이 모자라는 영농철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2천만원의 사업비가 더 투입돼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불가사리 구제기구 시연회

- 현남면 남애·동산항 마을 어장 -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을 위한 시연회가 지난 5월29일 오후 1시30분 양양군 현남면 남애와 동산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시범 개최됐다.이날 열린 불가사리 구제기구 시연회는 강원도와 시·군 수협, 어촌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가사리 구제기구 모형별 사용방법과 시범 작업이 실시돼 관심을 끌었다.특히 3가지 모형으로 제작된 불가사리 구제기구는 시연결과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모형을 선택해 도내 시·군 어촌계에 보급할 계획이다.강원도는 이에 따라 불가사리 구제기구를 통해 포획된 불가사리를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바다의 해적으로 알려진 불가사리 퇴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에 앞서 우리군은 지난 5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어업인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강현면 전진2리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1cm급 어린성게 1백만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했다.

## 쌀 전업농 지원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지사장 홍관식)는 우리지역을 비롯한 영북지역 관내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12억8천만원을 투입, 2002년도 전체사업 규모의 80%를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에 따르면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총 15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등 2002년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육군 일출부대 창설 14주년 기념식

- 정상인 교감 감사패 ... 군사대비태세 확고 -

동해안 해안경계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육군 일출부대(부대장 송영귀)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군장병과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병장에서 부대창설 1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부대창설 기념식은 다양한 행사와 함께 문충현 중령 등 3명에게 군사령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박윤규 소령 등 6명은 군단장 표창, 이상원 대위 등 22명은 부대장 표창을 받았다. 일출부대 송영귀 부대장은 인사말에서 “부대창설 14주년을 장병들과 함께 자축한다”며 “월드컵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와 결연한 자세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 88년 창설된 육군 일출부대는 갖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고 최정예 보병부대로 성장했으며, 특히 지난 96년 강릉 안인진리 잠수함 침투사건시 부함장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린 정예부대이다. 한편 육군 일출부대 창설 기념식에서 지난 10년간 사비까지 털어가며 부대장병들의 사기진작에 힘써온 인제 서화초등학교 정상인교감(60)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지난 92년 당시 양양군 강현면 회룡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정 교감은 민·군 유대강화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군부대 장병들을 찾았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 15만원짜리 돼지 1마리를 추석맞이 위문품으로 선뜻 전달하면서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정 교감은 이후 한남초등, 강현초등, 남애초등, 한계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를 옮기면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위문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매달 1번씩 학생들과 함께 부대를 찾아 장병들의 진중 생일잔치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리코더 연주, 게임 프로그램 함께 즐기기 등을 통해 장병들의 인성교육에 실천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출부대 나영호대위(34)는 “아무런 조건없이 베푸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장병들 모두가 친아버지처럼 따른다”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정상인 교감은 자신의 행동이 선행으로 비쳐져 부끄럽다며 평상시와 같이 장병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등 평범한 교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무선행 투어로 양양홍보 앞장

- 아마추어 무선연맹... 2달간 강원지역 순회투어 -

취미생활을 접목시킨 전문분야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강원도내 전역에 양양국제공항을 홍보하며 관광양양 알리기에 적극 나선 전문단체의 활약상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아마추어무선연맹 강원지부 양양사무소(KDN) 회원들. 아마추어무선연맹 양양사무소 회원 7명은 지난 3월3일부터 5월5일까지 2달간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무선교신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홍보에 나서는 등 활발한 민간대사 역할을 성공리에 해냈다. 양양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최수영씨를 비롯해 김정기, 탁성규, 김진열, 마낙길, 박일준 등 7명으로 구성된 무선행 홍보단은 강원도내 전역을 돌며 무선교신으로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양양지역 축제를 적극 홍보하며 관광양양 알리기에 나섰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후원과 군청 정보통신계 이재강씨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3월3일 강원투어에 오른 무선행 홍보단은 동해·삼척을 시작으로 횡성·원주, 철원·화천, 영월·태백 등 도내 전지역을 순회하며 ‘얼굴없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다도와 예절로 전통 잇는 황매화 봉사회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고 익힌 다도와 예절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나서는 우리지역 여성단체의 활약상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다도와 예절을 바탕으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황매화 봉사회(회장 백순애)가 바로 그 주인공. 전업주부 15명으로 구성된 황매화 봉사회는 지난해 창립, 지역축제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적십자 봉사회에서 출발한 황매화 봉사회는 우리군의 군화인 황매화를 상징으로 내걸고 회원들 모두가 ‘작은 것부터 바꿔간다’는 생활철학을 봉사활동에 투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우리군 여성회관에서 다도반 강의를 듣고 있는 황매화 봉사회원들은 지난해 현산문화제 개최에 따른 자원봉사를 자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 5월23일 실시된 소년원생 심신수련 탐방캠프 개소식에 봉사자로 참가해 따뜻한 손길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으며 가족간의 정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도와 예절을 통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황매화 봉사회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들을 대하는 회원 자녀들의 태도와 모습이 그것이다. 신세대 자녀들을 두고 있는 황매화 봉사회원들은 다도와 예절을 배우고 익히면서 가정에서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자녀들 또한 이전에 사용하던 반말을 자제하고 존댓말로 용어를 바꾸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스스로가 변화를 통해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모습을 확인한 봉사회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나서며 봉사의 보람과 자녀교육 극대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점 보완

- 지역복지, 자율성 확대추진 등 대책마련 -

우리군이 추진중인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주민의식 부족, 자율적 기반조성 미흡 등 문제점이 보완 강화 될 전망이다.군은 이달중으로 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검토하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군 주민자치 지원센터는 현북면 자치센터 이용가능 단체의 범위를 민간단체로 확대하고 기존 기능에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또한 주민자치 기능의 필수성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과 프로그램 선정시 관내 읍·면의 자율성을 확대,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사용료, 수강료 등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개정 검토에 따라 현북면 주민자치센터는 6월까지 문제점 보완과 추진사업 정비를 마치고 오는 7월중으로 본격적인 설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주민자치지원단 한정임단장은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 조례개정 검토를 토대로 완벽을 기하겠다”며 “주민들의 자치센터 설치 인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